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8월 5일(주일) 제1208호



“하용조 목사님,
보고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추모시

은혜입은 사람, 하용조 님

그대는 하늘서 내린 비전 품고
하늘 뜻 땅에서도 이루고자
우아한 백조의 날개로 날더니
저녁도 되기 전 저리로 가셨나이다.

그댄 여름이 감당 못할 열정의 사람
그런데 겨울 소나타도 마치기 전
애끓는 사랑의 기억 하나 남기고
서둘러 그 나라로 가셨나이다.

그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유별나게 은혜를 외치다
우리로 은혜에 빚진 자 되게 하고
Acts29 속제 남기고 가셨나이다.

그댄 은혜에 압도당해 산 사람
그래 육의 가시도 은혜로 불사르고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은혜 인생
그 은혜의 족함을 경험하셨나이다.

그댄 정녕 은혜입은 하늘 사람
이제 이 땅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당신 안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소서
당신을 압도했던 그 은혜를.

/ 친구 목동,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

7주기 추모예배 ... 가족, 성도, 목회자 등 1420여 명 참석

하용조 목사 소천 7주기 추모예배를 지난 8월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과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기념채플에서 드렸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용조 목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 지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8월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 추모예배에는 하용조 목사 가족과 성도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예배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사회, 손한기 장로의 대표기도, 추모영상 상영,

김영련 목사(산호세 온누리교회 담임) 설교, 하용조 목사 가족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용조 목사의 장남 하성석 원장(미주 두란노서원)은 “아버지께서는 가족만큼이나 성도님들과 교회를 많이 사랑했다”면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기념채플에서는 하용조 목사 가족 중심으로 추모예배를 드렸다. 하용조 목사 가족, 당회운영위원,

목회자, 지인 등 120명이 참석했다. 추모예배는 박종길 목사의 사회, 정파종 장로의 대표기도,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의 설교, 김영련 목사의 추모사, 하용조 목사 가족 인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원 목사는 “하용조 목사는 하나님만 붙잡은 겸손한 인생을 살았다”면서 “우리도 하용조 목사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자”고 권면했다.

김계순 권사(이촌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를 “예배드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라고 기억했다.

/ 김영선, 이소정, 권찬송 기자

추모사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이 그립고 또 그리운 우리 하용조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제가 받은 많은 축복들 중에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선구자(Forerunner)이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남들이 잘 보지 못하던 꿈과 비전과 미래를 보시던 분이셨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비전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말씀하실 때, 그 순간에는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둔한 머리로 2-3년이 지나야 그 비전과 뜻을 이해하며 ‘아,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외로운 선구자의 길을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하 목사님을 통해 비전과 미래를 보는 눈을 조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 목사님은 잠자는 영을 깨우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설교자이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차가운 머리로 믿던 믿음이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말씀 사랑으로 거듭났고, 제 삶과 목회에 큰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 목사님의 교회사랑! 하 목사님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교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모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모든 교회가 함께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며 비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사랑과

비전은 저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흘려 사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넓혀주었습니다.

하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세우는 분이셨습니다. 절없는 후배 목사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현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꿈꾸시며 인내하며 도와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너무 부족하고 절없던 저에게 기다림과 소망으로 인내하셨던 그 넓은 마음을 조금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담임목사가 되어 하 목사님의 사람에 대한 인내와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들에게 하시던 말씀 기억합니다.

“당신들도 담임목사가 되면 내가 한 말들을 이해할거야.”

가끔 사석에서 하 목사님께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과 애정을 살짝 드러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사모님에 대해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시간들에 대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 목사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귀한 만남이었을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셨던 하 목사님과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참으로 아름답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교회의 비전을 남겨주신 하 목사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그 넓은 그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만남과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 김영련 목사(산호세 온누리교회)

만남의 축복

“목사님 다시 뵈면 또 안아주세요”

사형수였던 그가 기억하는 하용조 목사

해가 일곱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하용조 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들이 많다. 하나 같이 하용조 목사를 만나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다. 김신실(가명) 형제는 하용조 목사가 전도한 사람이다.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사형수였다. 일명 ‘서산 톱싸롱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해 가석방 됐다.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진 그를 위하여 하용조 목사와 온누리교회가 구명활동을 했다. 구명활동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두 번 다시 세상 빛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옥중결혼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볼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런 그에게 하용조 목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을까.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98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25년 동안 대한민국 10대 강력범죄로 기록될 만큼 큰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서산 톱싸롱 살인사건’으로 기억되는 바로 그 사건이다. 김신실 형제는 그 사건 가해자다. 31년이나 지난 사건인데도 그를 만나러 가는 길에 긴장이 됐다. ‘혹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면 어쩌지’, ‘과연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됐다.

강서구 한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그를 본 순간 그동안의 염려가 붉은 녹듯 사라졌다. 그는 작은 예수를 꼭 닮아 있었다. 선한 인상과 소탈한 웃음소리가 매력적인 옆집 아저씨 같았다.

사형수를 찾아온 유일한 사람

“하용조 목사님은 제게 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제게 남은 건 죽음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를 꼭 안아 주셨는데 그때 그 온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김신실 형제와 하용조 목사의 첫 만남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신실 형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사형수였기 때문이다. 그는 서진 톱싸롱 사건 가해자로 체포되어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상태였다. 항소해도 감형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 언론이나 사회에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강력범죄를 일으킨 사형수 편을 들어줄 이가 있을 리 만무했다. 사회·정서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를 유일하게 하용조 목사가 찾아왔다.

“그때만 해도 경찰관이나 교도관들이 제 눈조차 쳐다보지 못했어요. 제 인상이 정말 흉악하고 징그러웠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아무 말씀 없이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진짜 천사 같았어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제게 살고 싶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살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이걸 읽어보라며 성경책을 주고 가셨어요.”

하용조 목사는 한 주에 한 번씩 김신실 형제를 찾아왔다. 찾아올 때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줬다.

“성경책 읽어 봤어요?”

“네 읽어 봤습니다. 목사님.”

“어때요. 살길을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럼 더 읽어봐요.”

그렇게 세 번의 만남 끝에 하용조 목사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제가 만약 살아서 감옥에서 나가면 고향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깐 말씀 한 구절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향인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형당하면 지옥 갈게 뻔한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목사님 말씀에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예수를 믿었다. 2심 재판을 기다리며 일주일에 성경을 한 두 번씩 통독했다.

“그랬더니 살겠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이 매주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하용조 목사는 세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모범수였던 김신실 형제의 탄원운동에 앞장섰다. 그 덕분에 김신실 형제는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받았다. 간신히 사형을 면하게 됐다.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무작정 구명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김신실 형제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독하게 매

서웠던 눈빛이 몰라보게 부드러워졌다. 수형생활도 모범적이었다. 그는 재소자들과 교도관들 사이에서 성실하고 바른 재소자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단 한 번의 사건사고도 없이 31년 동안 복역하며 죄값을 치렀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아팠다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너무 많지만 김신실 형제는 조금 더 특별한 복을 받았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기적 같은 일의 주인공이 됐다. 김신실 형제는 2002년 교도소에서 1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던 박마리아(가명) 자매와 옥중결혼을 했다. 결혼예배는 온누리교회에서 드렸고, 주례는 당연히 하용조 목사가 했다. 일주일 정도 주어진 신혼여행에서 생긴 딸이 벌써 고등학생이 됐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축복해주시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16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도 결혼생활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모범수였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씩 휴가를 주는데 그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용조 목사님을 찾아 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반겨주셨는지 몰라요.”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녀도 하용조 목사를 아주 특별하고 귀한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용조 목사님은 정말 우리 가족 같았어요. 남편이 없을 때 집안에 고만거리가 있으면 하

목사님을 찾아 뵈어요.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면 정성껏 조언을 해주시곤 했어요. 아버지처럼 정말 따뜻하셨어요. 딸도 어렸을 때 하 목사님이 기도해주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문득문득 목사님이 그리다고 말하곤 해요.”

2011년, 하용조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은 김신실 형제는 그 자리에 쓰러져 평평 올었다. 얼마나 올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 슬픔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팠다.

“저는 교도소에 있어서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것도 몰랐어요. 강찬석 장로님(서대문 공동체)께서 오셔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정말 평평 올었어요. 출소하면 하용조 목사님을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가시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한 게 한스럽더라고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3일을 굶었어요. 그나마 아내와 딸이 장례예배에 다녀와서 다행이라고 위안 삼았어요.”

하용조 목사가 소천 한 이후에도 온누리교회는 김신실 형제 구명활동을 이어갔다. 이제훈 담임목사와 장로, 새사람사역팀 등 3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26번의 탄원 끝에 지난해 가석방 승인을 받았다. 그 덕분에 지금은 세 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가석방 받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하용조 목사님 성묘를 갔어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라고 인사드리면 환한 미소로 반겨주실 것 같았거든요.”

김신실 형제는 자신은 지금 1살이라고 소개한다. 31년 동안이나 교도소에 있었던 그에게 지금 세상은 별천지다. 배울 것도 많고 적응할 것도 많다. 그래도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뜻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뜻대는 다름 아닌 복음이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이 제 삶의 기준이에요. 하 목사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어요.”

김신실 형제 부부가 하용조 목사에게 전하지 못한 인사를 이제야 했다.

“하 목사님 잘 계시죠?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뵈면 또 안아주세요.”



주일강단



서경남 목사

에스더서 9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두째 달, 곧 아달 월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 구역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안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 다.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해 설 수 없었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개는 왕궁의 주요 인사였고 그의 명성은 온 지방에 자자해졌으며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하여 상황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이루어진 역전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인데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바뀌는 영적인 역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바디매오가 “예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마태가 “나는 예전에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나는 예전에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십시오. 이것을 잘 표현하는 말이 ‘크리스천’입니다.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려 학살하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갚아 주었습니다. 수산 왕궁에서 유다 사람들이 죽인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죽인 사람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새, 아리대, 왜

사다였는데 그들은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열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5~10절).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다시는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거룩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가던 길을 돌아올 수 있는 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고, 역전을 경험하면 물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를 위하여, 대적한 모든 이들이 악행을 철저히 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최종적인 죄는 권력과 물질이었습니다. 권력과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약탈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알뜰한 물질에 욕심을 가지면 의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욕심을 가지면 생각과 비전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수하면 회복될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거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리고, 이해하고, 전해야 할 ‘은혜’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고후 2:16).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이를 헬라어로 ‘아로마’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모락모락 나기를 바랍니다. 냄새는 감출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의 냄새와 사망에 있는 사람의 냄새는 아무리 감싸고 포장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빛쟁이입니다. 복음의 빛쟁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삼니다.

“이것은 아달 월 13일에 일어났고 14일에는 그들이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는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17~18절).

13~15일 동안을 ‘프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과 마실 것을 서로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애잔을 나누고 교제하며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이것이 ‘프림’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개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 원근 각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구역 전역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내서 그들이 아달 월 14일, 15일을 해마다 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20~21절).

여러분 절기를 지키며 은혜를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에는 쓴뿌리를 먹을 때도 있고, 포도주를 마시는 때도 있고,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단것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절기별로 지키는 이유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기념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맛은 누가 양념하냐에 달려있다(O Sabor da vida depende de quem tempera)”입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재료가 같아도 손끝에서 맛을 냅니다. 양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양념을 누가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이해하고, 전해야 할 은혜입니다.

슬픔과 고통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그러하여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개가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대로 그 절기를 계속 지켰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모든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멸

망시킬 일을 꾸미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았지만 왕비가 왕 앞에 나가 하만의 음모를 밝히자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두고 꾸민 그 악한 계획이 그 머리 위에 돌아가 그와 그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부르’라는 말을 따서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편지에 적힌 모든 것과 그들이 그 일에 관해 본 것과 그들에게 알려진 일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그 후손과 그들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두 날을 기록된 대로 해마다 그 때에 틀림없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날들을 꼭 기억해 모든 집안마다 모든 세대에서, 모든 지방과 모든 성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했으며 그 후손 가운데서 그날이 잊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23~28절).

부림절은 슬픔과 고통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역전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기념하는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네 하나님 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다”(출 20:5~6).

축복과 저주 중 축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빼먹지 않고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에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 하셨습니다”(대 4:10).

아베스 대신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가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자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아담 혼자 살 수 없어 하와를 지으셨다

남녀갈등 넘어 혐오로 번진 사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교회가 성경적 성역할 가르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광장 돼야

우리 사회가 세대, 남녀, 노사, 이념 등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정 계층만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서 더욱 심각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과 ‘통합’이다.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회를 화합시키고, 통합시키는 역할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다. 모든 세대, 인종, 지역, 문화, 이념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는 세상에 교회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남녀갈등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려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남녀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을 넘어 혐오로 번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녀갈등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여사’ (운전을 못하는 운전자를 이르는 말), ‘된장녀’ (사치가 심한 여성), ‘맘충’ (이기적인 엄마들), ‘한남’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말), ‘김치녀’ (한국여자를 비하하는 말) 등 남녀를 비하하는 말이 너무 많아졌다. 남녀를 비하하는 말들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들불같이 번지고 있는 남녀갈등은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초등학교생조차 남녀를 비하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게 현 주소이고, 초등학교생들의 남녀갈등 또한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한다.

남녀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남녀의 의식차이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성별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취업할 때 유리한 성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 절반이 ‘그렇다’고 답했다. 취업에 유리한 성별은 남성(76.3%)이었다. 실제 구직활동을 하면서 성별로 인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는 구직자가 남성 26.9%, 여성 44.3%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남녀갈등은 결혼에 대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2030세대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혼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6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남성 47.4%, 여성 76.7%가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혼자 그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기혼 남성은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3.2%로 전체 응답군 중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기혼 여성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4%를 기록했다.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문화 자체가 불



평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여성의 91.1%, 남성의 73.3%가 ‘결혼문화는 양성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남성이 결혼문화는 양성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가정의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61.1%)’ 때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신혼집 마련 등 남성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결혼비용(57%)’, ‘남자는 경제력, 여자는 외모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평가 받는 배우자의 조건(44%)’ 등을 꼽았다.

여성들이 결혼문화는 양성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맞벌이·외벌이 상관없이 가사는 여성 몫이라고 여기는 가사문화(73.1%)’ 때문이었다. ‘육아를 엄마 몫으로 여기는 여성 중심의 육아환경(69.6%)’, ‘매사 본가가 우선시되는 본가(시가) 중심의 가족문화(46.5%)’가 그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남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사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운동’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교육

권과 투표권 등이 여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S.앤터니 등이 여성참정권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 비슷한 시기 철저한 남존여비 사상이 주를 이뤘던 조선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참담했다. 여성들에게 독립적인 인권이나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 몇몇 양반가문의 여성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근대개항 이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 그 중심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었다. 조선에 온 선교사들에 의해 조선의 여성들을 위한 근대 교육 및 다양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서울 이화학당, 평양 정의여학교 등 다양한 근대교육기관에서 조선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전통적 사고방식과 계급을 타파하고 남녀평등 사상을 꿈꾸기 시작했다. 여성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여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직장, 학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하는 폭력 및 차

별행위가 비일비재하고, 이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남성중심의 사회적 행태가 지금의 여성운동을 촉발시켰다고 이해해도 부족함이 없다.

〈82년생 김지영〉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남녀갈등 구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세대가 20~30세대다. 지금 20~30대 여성들은 학교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실제 그녀들이 살아온 혹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평등하지 않았다. 학교, 직장,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난무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성은 엄마들이었다. 20~30대 딸들이 그리는 엄마의 자화상은 늘 참고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였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20~30대 딸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즈음 대한민국 여성들의 목소리를 웅변하는 책이 한 권 나왔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여성들의 울부짖음을 대변한 소설 〈82년생 김지영〉이다. 이 책은 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이란 여자가 여자라서 받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서술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 책의 줄거리를 조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녀차별의 시작은 집이었다. 김지영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다. 남동생의 분유를 먹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할머니에게 혼쫓아 났다. 감히 귀한 손자의 분유에 손을 댄다는 게 그 이유다. 초등학교 때는 지독하게 괴롭히던 남자 짝꿍을 만난다. 담임교사는 김지영에게 ‘남자애들은 원래 좋아하는 여자한테 더 못하게 굴고, 괴롭히고 그래’라며 참고 이해하라고만 한다. 대학에서 남자친구와 사귀다 헤어졌는데 남자 선배들이 그녀를 ‘찜다 버린 껌’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사회에서도 남녀차별이 이어졌다. 여자는 대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서류심사 통과도 어려웠다. 택시기사는 ‘첫 손님으로 여자는 태우지 않는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결혼하고 출산을 한 김지영이 어린 딸을 돌보다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며 쉬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녀에게 ‘맘충’이라는 모욕

적인 말을 내뱉는다. 결국 김지영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에 걸리고 만다.”

소설 같지 않은 소설에 많은 여성들이 공감했다. 살면서 어렵지 않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지 않고,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며 양성평등운동을 시작했다.

〈90년생 김지훈〉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여성평등운동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남성들이 ‘역차별’이라고 들고 일어났다. 그 즈음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는 〈90년생 김지훈〉이 등장했다. 이 책은 ‘남성역차별 시대 남성 인권을 위한 책’을 표방하고 있다. 〈90년생 김지훈〉은 출판도 되지 않았는데 1주일 만에 펀딩을 통해 수익금 1천만 원을 벌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남성들이 〈90년생 김지훈〉에 공감하는 걸까? 남성들도 일상에서 느끼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자가 쪼잔하게 왜 이래”, “남자가 그것도 못해” 등 지나칠 정도로 남성성을 강요받고, 남성들에 대한 성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예를 들어 종편방송 JTBC에서 남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남성들이 소변을 본 다음 손을 얼마나 씻는지를 보도했고, 공중파방송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에서도 샤워장면을 방영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남성들만 부담하는 것도 성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여성들도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이상이 동의했다. 우스갯소리로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군대 가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들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요 논점은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군가산점 혜택을 폐지시켰으니 여성들 또한 법률개정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징병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 간부와 여경 모집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 등이다.

남성들이 토로하는 또 다른 역차별은 결혼비용이다. 과거에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적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여성들 대신 남성들이 결혼비용을 부담했다. 그런데 요즘은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전히 남성들이 결혼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1996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결혼비용은 남자 4,355만 원, 여자 3,628만 원이었다. 2016년 MBC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결혼비용이 남자 8,078만 원, 여자 2,936만 원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결혼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남성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최근 여성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계기

결혼문화가 불평등한 이유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 61.1%

남성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혼비용 57%

평가 받는 배우자의 조건 44%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가사문화 73.1%

여성 중심의 육아환경 69.6%

본가(시가) 중심의 가족문화 46.5%

가 있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도화선이었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주점에서 일하던 남자가 한 여성을 살해했다. 범인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남자 6명은 그냥 지나치고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여성혐오범죄’라는 의견이 나왔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마 범죄’라는 의견과 참여하게 대답했지만 여성혐오범죄 쪽으로 추가 기울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여자라서 죽었다”고 소리쳤다. 당시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은 포스트잇에는 “남아 있는 여성들이 더 좋은 세상 만들게요” 같은 여성혐오범죄를 지적하는 글들이 수도룩했다. 여자는 잠재적 피해자라는 논리는 비약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범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고 성범죄에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50.9%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남성(40.1%)보다 10.8% 높은 수치다. 부문별로는 범죄발생(73.3%), 신종질병(65.5%), 정보보안(53.4%) 순이다.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은 여성이 남성보다 12.7% 높고,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2만 6116건)이 남성(1478건)보다 약 17배나 높았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강도를 당한 여성 피해자가 2006년 2512건에서 2016년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성폭력과 폭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21~30세(9644건)가 가장 많았다. 20세 이하(7986건), 31~40세(3357건)가 그 다음 순이었다. 올 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외침이 있었다. 미투(#MeToo)운동이다. 미투운동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투운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2017년 10월 미국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문단계, 연극계 등 문화·예술계, 정치계까지 번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투운동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불러일

으키는 데에는 큰 효과가 있었는데 조금씩 흐릿해지면서 남녀갈등 양상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여론재판이나 거짓 미투(무고) 때문이었다. 미투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사실과 관계없이 지목된 그 자체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다. 무고한 미투로 목숨을 끊은 교사와 교수도 있었다. 무고한 여성은 가벼운 처벌만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대검찰청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남성들의 불만이 더욱 커졌다. 개정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매뉴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억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고발당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보통인데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펜스룰’이다. 펜스룰은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 유래된 용어다. 많은 남성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의지와 관계없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여성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다. 여성운동계에서는 펜스룰에 대해 “성폭력 안 저지르고 여성과 일하는 법을 모르면 배워야”한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남녀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남녀갈등을 뛰어 넘어 남녀 혐오로 번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혐오와 혐오가 오가면
소통과 이해될 리 없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자가 피의자가 여자라서 경찰이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일반적인 몰래카메라, 리벤지포프노 같은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피의자가 남성이라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집회였다. 이뿐만 아

니라 ‘여성 경찰관 90% 비율 임용’, ‘여성 경찰청장 임명’, ‘문무일 검찰총장 사퇴’, ‘판·검사 등 고위 관직 여성 임명’,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촬영·유통·판매·구매자에 대한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국제공조수사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달 7일 대학로에서 열린 3차 집회에서는 ‘문재인 재기해’라는 문구를 외친 퍼포먼스가 논란이 됐다. ‘재기해’라는 단어는 2013년 한강에 투신한 고성재기 대표(남성연대)를 비하하는 말로 자살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문재인 재기해’라는 문구는 ‘문재인 대통령 자살해’라는 의미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편파수사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남성 가해자는 엄벌하고, 여성가해자는 가볍게 처리됐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였다. 해도 너무한 극단적인 표현이 오가는 집회를 두고 남성들은 ‘웬돼지들이 쿡쿡거린다’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똥돼지는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인터넷 사이트 ‘위마드’를 이용하는 여성들은 똥돼지 같다는 뜻이다. 이 말에는 남자를 만나 본적도 없는 매력적이지 못한 여성들이나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혐오와 혐오가 오가면 소통과 이해 될 리 없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말하면 배신자로 낙인을 찍으며 동성끼리 갈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남녀갈등 극복 위한 교회의 역할

극으로 치닫는 남녀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20세기에 배우지 못하고, 단순한 노동력으로 취급받던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운 주체가 교회였다. 바로 그 교회가 다시 한 번 성평등과 건강한 여권신장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남녀가 건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이 되어줘야 한다. 인터넷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무분별한 의사소통은 건강한 토론은 고사하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게 할 뿐이다.

또한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 역할을 가르쳐야 한다. 남녀는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할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야 할 몸이다(창 2:24). 하나님은 아담(남자) 혼자서 살 수 없기에 돕는 배필 하와(여자)를 지으셨다(창 2:18). 또한 성경은 남녀는 험뜯고 빠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이라고 말하고 있다(엡 5:21).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 하듯 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엡 5:21-33).

비신자들에게 성경적 성 역할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성 역할을 삶으로 살아내면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살아있는 계몽운동이 될 수 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가정, 학교, 일터에서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자. 남녀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오카야마(홍수피해 지역)에 가다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오카야마와 함께 울다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아니 물벼락이었다. 지난 7월 8~9일, 그 이틀 동안 7월 한 달 동안 올 강수량의 2.7배가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진 폭우는 순식간에 일본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마비 마을을 집어삼켰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에 가재도구 헹갈 정신도,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다. 옥상이나 2층 베란다에서 수건을 흔들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신원석 목사, 이가일 PM)을 중심으로 대학청년부(김동휘, 이성환, 안재성, 임재민, 노희국, 이수현), 일본어예배부(김삼인 전도사, 요시오카 리에 자매)에서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곳에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더위와 먼지, 쓰레기와 싸워가며 구슬땀 흘렸다. 살인적인 폭염과 태풍 경보도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의 열정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 현장에 동행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먼지와 쓰레기로 뒤덮인 오카야마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가장 힘든 아동관 천장을 해체했다. 나사를 돌리고 천장을 떼어냈더니 고여 있던 썩은 물들이 쏟아졌다. 온몸이 썩은 물로 뒤덮였지만 그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동관 안쪽에 산적해 있는 쓰레기도 치웠다. 할 일이 산더미였다. 오죽했으면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니 20분 일하고 10분 쉬자고 했던 일본인 관리자의 말이 지켜지지 않았다.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의 열정에 현장 담당자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온 김승희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는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일본 사람 다섯 명분 역할을 한다”며 뿌듯해했고, 쿠사이 목사(재해지원센터장) 또한 “한국 청년들 덕분에 아동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 “염치 없지만 온누리교회에서 봉사팀을 또 보내주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뿐이다. 그들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고, 조그마한 힘을 보탤 뿐이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후나마 씨의 표정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후나마 씨는 미신자이다. 그런 그가 기도로 복구작업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과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눈물 흘렸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정성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모두가 외면하는 곳에 찾아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으리라.”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과 헤어지며 오카야마 그리스도 재해지원센터의 스테프 야야 씨는 “관광으로라도 좋으니 오카야마에 꼭 다시 들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힘든 복구 작업을 또 하러 와달라고 하기에는 미안했던 모양이다.

마비 마을 사람들은 이번 홍수로 너무 큰 상처와 피해를 입었다.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야 한다.

“하레노 쿠니에 요우코소”(청명한 나라에 온 걸 환영합니다)

지난 7월 25일, 오카야마공항에 도착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을 반기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그렇다. 오카야마는 일본에서도 청명하기 그지없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커녕 원자력발전소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한 곳이라고 자부하던 곳이다. 일본 5대 전래동화 ‘모모타로(복숭아동자) 이야기’를 탄생시켰을 만큼 복숭아가 유명한 풍성하고 평화로운 곳이다. 바로 그 풍성하고 평화롭던 오카야마에 재앙이 닥쳤다. 지난 7월 8~9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그 폭우로 오카야마현뿐만 아니라 서일본 일대(히로시마현, 에히메현 등)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 보고(8월 1일 현재)에 따르면 사망자 220명, 가옥 파괴 5,074채, 반파된 가옥도 4,592채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이들 수해지역을 ‘특정비상재해’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신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을 포함해서 일본 정부가 특정비상재해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진이 아닌 호우 재해로 인한 지정은 일본 역사상 처음이다. 설상가상으로 폭염과 잇따른 태풍경보로 복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마비 마을은 그 아름답던 모습이 아니었다. 홍수로 터전을 잃었는데 폭염으로 재해복구 의지마저 없었다. 도

움을 주는 손길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먼지와 쓰레기만 가득했다.

내 가족의 고통처럼 여겨져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오카야마 그리스도 재해지원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히로에성약그리스도교회’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온 크리스천 자원봉사자들이 이 센터에 모이고 있다.

일본인 자원봉사자 고토 요이치 씨(일본국 제기아대책기구)는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을 누구보다 반겼다. 우리를 보자마자 “덥고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가 먼저 나서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재해지원센터 스테프 이토 야야 씨도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을 통해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의 첫 임무는 수마가 휩쓸고 간 가옥의 잔해를 치우는 일이었다. 후나마 씨의 2층 양옥집을 찾았다. 벽과 집, 차고, 창고와 마당의 나무까지 진흙 범벅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긴급구호팀 도착 하루 전부터 수도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은 급수 받은 물로 생활했기 때문에 복구는 생각도 못 해봤다. 물이 너무 많아 생긴 재난인데 물이 없어서 복구를 못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온몸이 땀으로 젖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잔해를 치웠다. 창고를 철거하고, 마당에 있는 나무도 뽑았다. 대량의 쓰레기도 운반했다. 긴급구호팀 요시오카 리에(일본어예배) 자매가 특히 마음 아파했다. 그녀의 고향이 오카야마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향집의 피해는 없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긴급구호팀원 모집 소식을 듣자마자 신청했다.

“이 집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리에 자매뿐만이 아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모두가 선한 이웃의 심정으로 오카야마에 왔다. 재난을 당한 오카야마 사람들의 고통이 마치 내 가족의 고통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온몸이 썩은 물로 뒤덮여...

특명이 떨어졌다. ‘마비 아동관’(마비 지역 아동센터) 복구 작업 의뢰가 들어온 것. 일본은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불볕더위와 연이은 태풍경보가 그것이다. 그 때문에 관청이나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해본부들은 문을 닫거나 복구 작업을 일시중단한 상태이다. 지금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있는 기관은 오직 오카야마 그리스도 재해지원센터 밖에 없다. 역시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선한 이웃이 되는 이들은 크리스천들이다.



이해영 목사가 세빛교회에서 장병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이주민 33명 세례 받는다

온누리미션 이주민연합 세례식

온누리미션이 다음 주일(12일) 오후 2시 안산M센터에서 이주민연합 세례식을 거행한다. 안산M센터 온누리홀에서 이주민연합예배를 드리고, 지하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주민연합 세례식에서는 캄보디아, 네팔, 이란, 태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 33명이 세례를 받는다. 온누리미션은 매년 여름 예수 믿고 거듭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주민연합 세례식을 개최하고 있다. 해마다 세례 받는 이주민 성도들이 늘고 있다. 2016년 13명, 2017년 26명이 세례를 받았다. 올해는 33명으로 재작년보다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이주민연합 세례식에서 세례 받은 어드후와 강치맥 부부(몽골)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다”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서대문공동체, 진중세례식 개최

12사단 훈련병 167명 세례, 입교 8명

서대문공동체가 지난달 28일 12사단 37연대 신병교육대 세빛교회에서 진중세례식(복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 등에게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세례식)을 개최했다. 훈련병 167명에게 세례를 줬다.

이날 진중세례식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서대문공동체 성도들과 훈련병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강찬석 장로(서대문공동체)의 대표기도, 서대문공동체 여선교회의 특송, 이해영 목사(온누

리교회)의 설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해영 목사는 ‘너희는 이렇게 살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장병들이 되길 바란다”며 훈련병들을 축복했다.

2부에서는 이해영 목사(온누리교회), 최현준 목사(안양 예방교회) 등이 훈련병 16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입교식도 진행됐다. 입교자는 8명이었다.

김동영 훈련병(22세)은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고, 이산 훈련병(23세)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현숙 권사(서대문공동체)는 “많은 훈련병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그들이 이번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27기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27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한다. 훈련은 8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주간반(오전 10시)과 저녁반(오후 7시 20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평소 전도가 어렵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서빙고 온누리교회 1층 로비에 설치된 부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

전도폭발 훈련학교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이다. 전도폭발 훈련학교에서는 총 4단계 훈련을 실시하

고 있다. 1단계 훈련생 과정, 2단계 준훈련자 과정, 3단계 훈련자 과정(상급반), 4단계 훈련자 과정(고급반)이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행 1:8)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둘째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며, 영적인 성숙과 대인관계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다.

문의: 주간 010-2850-1021

저녁 010-6685-0812

서빙고, 양재 ‘예통 비전’ 개강

‘예통 비전(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읽는 90일 성경통독)’이 8월 29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개강한다. 서빙고 예통비전은 12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콘서트홀에서, 양재 예통비전은 10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서빙

고는 송석근 목사, 양재는 이기진 목사가 인도한다. 성경을 깊이 읽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010-9041-5538

양재 010-7938-9157

주일예배 내용 변경

8월부터 주일예배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먼저 봉헌찬양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에서 ‘주 은혜임을’(주 나의 모습 보네)로 변경된다.

또한 앞으로는 찬양할 때 스크린에 통자막 가사만 나오고, 중계영상은 볼 수 없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주목하려는 목적이다. CGNTV 방송으로는 중계영상을 볼 수 있다.

통일아카데미 개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앞장서서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다. 교회와 성도들이 통일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2018 통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9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010-9064-6080

이번 주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대학교 대강당

대학청년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이 ‘Like Jesus’를 주제로 이번 주 수요일(8일)부터 토요일(11일)까지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막 오른다.

2년마다 개최되는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은 지역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집회이다.

이번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에서는 메인강의, 주제 강의, 선택식 특강이 이어진다. 메인강의에서는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 ‘임재’, 하정완 목사(꿈이 있는 교회) ‘복음’, 이용규 선교사(내려놓음) 저자 ‘청년’, 이상익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자존감’,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선교’, 임은미 선교사(KOSTA 강

사) ‘성령’, 정진호 교수(평양과학기술대학)가 ‘비전’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주제 강의는 배상민 교수(KAIST 산업디자인학과)가 ‘일타’를 주제로 한다.

선택식 특강은 이성교제(김숙경 간사)와 이단(김강림 전도사) 관련 강의 중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게스트도 풍성하다. 히스람, 매트블랙워십, CCM 가수 김도현, 지미선, 노상진 등이 출연한다.

김승수 목사는 “이번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다음 세대 영적리더십이 세워지고, 한국 교회에 청년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밝히며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CGNTV 미디어 아카데미 개최

CGNTV가 ‘2018 미디어 아카데미’를 강릉과 대만에서 개최했다.

강릉 미디어 아카데미는 지난달 10일부터 2박3일 동안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실시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직분자 및 사역자 44명이 참석했다. 대만에서 개최된 미디어 아카데미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대만 타이중 무의탕교회에서 진행됐다. 현지 사역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CGNTV는 이번 미디어아카데미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교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드라마 제작 실습’, ‘영상 촬영 및 편집’, ‘우리교회 음향 시스템’ 등의 강의와 실습

을 병행했다.

유성도 목사(운신장로교회)는 “자비량으로 멀리까지 와서 섬겨주는 모습에 감동했다”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강의들을 준비해줘 너무 고맙다”고 인사했다. 렌핑 롱 자매는 “몰랐던 부분들을 배우면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CGNTV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도 미디어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해외지사를 중심으로 미디어 아카데미를 개최해 현지 미디어 사역자들을 교육한다.

